

중동전쟁 관련 IPEF 회원국간 공급망 대응 현황 및 협력방안 협의

-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제5차 정례회의 화상 개최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5.26(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제5차 정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IPEF CRN은 IPEF 공급망협정에 따라 2024년 설치된 이행기구로 공급망 위기 발생시 회원국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호주·일본·싱가포르 등 9개 회원국이 참석해 최근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등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교란 상황이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 중동 사태의 영향이 원유·LNG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등), 비료(요소 등), 헬륨 등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각국의 상이한 공급망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가격·수급 안정화 정책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장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의장국 선출 방안과 CRN 운영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선·운송경로 다변화와 회원국 간 정보공유 확대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에 따른 각국의 공급망 위기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부는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CRN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끝.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책임자	팀 장	임철성 (044-203-4872)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TF	담당자	사무관	이상엽 (044-203-4876)